

제주신화에 나타난 여성성의 특징들

양영수*

<차례>

서론

1. 성 역할에서 능동적인 여성
 - 1.1. 구애방법이 적극적이다
 - 1.2. 강인한 자활능력의 소유자이다
2. 애정실현의 현실적응력이 강한 여성
 - 2.1 체제에 거역하기보다는 순응한다.
 - 2.2. 성 역할의 기대에 지혜롭게 대응한다
3. 사랑다툼에서 유화적인 여성
 - 3.1. 일부다처관계를 용인한다
 - 3.2. 사랑의 공유는 자기억제가 아니라 자기실현의 길이다

결론

국문요약

제주신화 가운데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분석해 볼 때 여신들의 능동적 적극적인 성 역할 수행이 주목을 끈다. 그들은 남성들보다 더 적극적인 구애행동을 보여주며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경우에도 의연하게 독립 자활하는 강인한 성격을 보여준다. 그들은 애정실현의 현실적응력이 뛰어나 남성과의 욕구 충족을 지혜롭게 이끌어내며 체제에 거역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순응하는 점도 애정 욕구의 좌절을 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한 남성을 두고 여러 여성이 사랑의 경쟁관계를 벌일 경우 남성의 사랑을 독점하기 위하여 투쟁하지 않고 비교적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평화로운 공유관계, 즉 일부다처관계의 애정을 택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우량 유전자를 전승하기 위해서는 한 남성의 애정을 여러 여성이 공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진화생물학적 성선택 원리를 수용할 때, 제주신화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부다처 관행 속에서 생물학적인 본능이 문명의 억압에 손상당하지 않았던 옛 시대의 잔영을 발견하게 된다.

주제어 : 적극적 구애방법, 자활능력, 현실적응력, 체제순응적, 일부다처 용인

서론

동서양을 통하여 남성우월적인 사회제도와 관습을 당연시하는 시대가 오래 계속되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남녀평등적 (때로는 여성우월적인) 사고가 자연스럽게 표명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여성들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데다가 (완력을 제외하고) 그들의 종합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남성에 비해 결코 열등하지 않다는 확증들이 속속 발견되면서 종래의 남성중심적 인간관이 급속히 수정되고 있다. 오랫동안 인류문화를 지배해온 남성우월주의가 지적인 오만과 만성적인 부도덕성을 벗어나지 못했고 특히 남성집단이 주도해온 근대화 이후의 과학기술 문명이 심각한 비인간화의 길을 걸어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남성우월적인 문화패턴에 대한 심각한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성적인 역할과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근래에 들어 크게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의 각별한 관심을 끄는 것은, 인류역사의 초기에는 여성우월적인 문화패턴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며 더욱이 그런 시대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구석기 및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일부일처제도 이전의) 난혼시대에는 대체로 여성우월적인 사회였다는

수많은 역사가들의 주장이다. 그들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여성이 지배하던 사회는 무려 수십만 년이라는 장기간이어서 청동기시대 이후의 1만년도 안되는 남성우월적인 시대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이다.

장기간에 걸친 여성우월적 문화패턴이 인류역사 초기에 존재했음을 알리는 증거들 가운데 여러 민족의 고대신화가 있다. 민족마다 신화의 양상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로 그 시대가 고대쪽으로 올라갈 수록 여성우월적인 신화의 성격이 더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으로서의 신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평가 움직임이 고조되면서 제주도 신화의 풍부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고 활발하게 연구되어온 지가 수십 년이 되지만, 최근에 와서 연구자들의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제주신화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강한 여성상이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가 당연한 자연법칙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이라 할 만큼 제주도 신화는 지혜롭고 강인한 여성 주인공들을 수도 없이 등장시키고 있다. 제주신화의 다양한 스토리들 가운데에서 남자 파트너들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동력을 보여주는 여성 주인공들의 모습은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제주신화의 여성들은 남자 주인공들의 보호 그늘 안에 안주하는 수혜자이기보다는 험난한 인생행로의 과감한 개척자 역할을 하며, 남자들에 대하여 양순한 추종자이기보다는 진취적인 선도자일 경우가 수없이 많다.

신화가 구체적인 인간생활의 표출 결과이고 실제적인 역사의 소산임을 생각할 때 제주 사람들에게 풍부한 신화가 전승되고 있음은 그럴 만한 역사적 배경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원래 신화의 형성은 이성의 지배,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산업화 현상 등 합리주의의 근대적 요소들과는 공존하기 어려운 것인데, 제주인의 역사는 이같은 반(反)신화적인 요인들이 비교적 약했다는 것이다. 과거에 제주섬에서는 한반도에서와는

달리 유교와 같은 합리주의 사상의 전파가 철저하지 않았고, 근대적인 과학기술의 보급이나 산업화의 진전도 매우 더디었다는 것이 신화 형성의 호조건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주신화의 여성주인공들이 현저히 강한 성격으로 나타나는 것도 제주역사의 소산임에 틀림없다. 제주섬에서는 정권투쟁이나 국제간 전쟁 등을 통하여 남성적인 권력욕구를 만족시키는 강력한 국가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제주신화가 생성된 토양이 무속문화이고 무속문화의 주요 생산자들이 여성이라는 사실도 신화 속 여성주인공들의 성격이 강하게 표출되는 큰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제주인들의 주된 생계수단이었던 밭농사 경작에서는 여성에게 적합한 노동인 김매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논이 물길을 개폐하는 등 남성적인 노동이 많이 필요한 한반도의 쌀농사와 달랐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제주섬에서 신화의 형성과 전승이 풍부했다거나 제주신화의 내용에 있어서 여성적인 감성요소들이 많이 발견된다거나 하는 사실은 제주인의 역사가 전근대적인 단계에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근대 유럽의 계몽적 합리정신이 추상적인 자연법칙을 발견하고 자연과학과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기계문명과 산업사회를 일으켰던 역사가 남성적인 이성능력의 소산인 반면에, 여성적인 감수성과 보호본능이 남성적인 합리주의와 산업문명에 의해 마멸되지 않은 어떤 상태, 소박한 인간성의 온존상태 같은 것을 제주신화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된다.

근대적인 과학기술과 산업문명의 발달은 물질적인 풍요의 이면에서 생명의 존엄성과 영성의 소중함을 홀대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근대문명의 이 같은 파행현상은 흔히 남성원리에 의한 여성원리의 훼손으로 이해된다. 과학기술과 산업문명이 이성중심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삶을 추구하고 자연의 힘을 인간중심적으로 지배하고 정복하는 일은 남성원리에

속하고, 연약한 생명의 아픔에 대해 돌봄과 보호의 손길을 내밀고 신비한 여성체험에 주목하는 섬세한 감성능력은 여성원리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있었던 제주신화의 연구성과를 이같은 여성원리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음미해보며 이를 통하여 전통적인 제주문화 요소로서의 여성원리를 확인해보는 일은, 앞으로 도래할 여성성 회복의 시대에 제주신화에 부여될 문화사적 위상을 모색하는 일에 의미있는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제주신화에 나타난 여성의 성 역할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제주신화 특유의 오묘한 여성원리를 발견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신화 속에 담겨있는 제주인들의 삶의 역사를 추론해 보려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논문에서 제주신화의 전거(典據)로 사용한 문헌들은 대체로 다음의 일람표에 나오는 것들이다. 제주신화 중에서 일반본풀이의 내용은, 이본(異本)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서사구조의 의미와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감상할 필요에서 여러 자료들을 서로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반면에 본향본풀이에서는 그 서사구조가 대체로 단순하여 비교 감상할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았으므로 단일한 자료들 중에서 적절한 것을 골라서 발췌 인용하였다.

**본문 중에 약칭 표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 무가 본풀이,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 서사무가

자료의 명칭	편저자	주요 구술자	출판연도: ()속 연도는 최초의 출간임	출판사
1. 제주도 신화	현용준	安仕仁, 李達春, 李仲春 등	1977	서문문고
2.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진성기	이달춘, 김오생, 홍명옥, 양창보, 오신정 등	1991	민속원
3. 제주도무속과 서사무가	장주근	고대중	2001	亦樂
4. 朝鮮巫俗의 研究	秋葉隆	朴奉春	(1937), 1991	東文選
5. 이용옥 심방 본풀이	허남춘 외	이용옥	2009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6. 風俗 巫音	(미상)	‘文彰憲’으로 추정	(1982), 2002	제주문화

1. 성역할에서 능동적인 여성

제주도의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의 성역할 수행이 얼마나 능동적 적극적인 성향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제주도 신화이다. 제주도 여성에게 주어졌던 막중한 성 역할이 역사적으로 무엇에 연유했느냐 하는 문제는 많이 논의되어 온 바이다. 오래전부터 제주도에에는 국가적인 정치투쟁이나 국제적인 전쟁, 대규모 토목사업 등 남성에게 기대될 만한 과제들이 비교적 적었던 반면에, 여성들의 강한 활동력을 요하는 척박한 밭농사나 연안 해산물 채취가 제주인들의 주요 생계수단이었고, 목축, 사냥, 고깃배 타고 나가기처럼 가옥에서 멀리 격리된 남성들의 활동은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의 실질적인 권리행사에서 소극적으로 만들었다고 추정되거

니와, 이같은 성역할 양상은 바로 제주신화 스토리의 배경이 되고 있다.

1.1. 구애방법이 적극적이다

제주신화 여성 주인공들의 능동적인 성역할 수행은 우선 그들의 적극적인 구애방법에서 나타난다. 여성들은 남성의 구애행동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먼저 자신의 애정욕구를 표출하고 구애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데이트 신청은 남성이 먼저 해야한다거나 남성의 프로포즈를 쉽게 수락하는 여성은 매력 감점이 된다거나 하는 우리 사회의 오랜 통념에 비추어보면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제주신화의 스토리 중에는, 남성이 먼저 구애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시인하는 말이 나오면서도 여성의 구애행동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면, 능동적인 애정표현에 나타나는 제주 여성들만의 독특한 성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기도 여겨진다. 아래에서 살펴보면, 여성들의 적극적인 구애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일반 본풀이에서이고, 각 마을의 본향당 본풀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같은 사실은 본향당 본풀이에서는 미묘한 구애행동의 방법이 서술될 만큼 자세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본향당 본풀이라고 해서 남성 주인공들이 적극적인 구애행동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1.1.1.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적극적인 구애방법

한국의 창세신화들은 지역에 따라 공통되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지역의 창세신화 가운데 천지왕과 지상국 부인[총명아기, 총명부인, 박이왕, 서수암 등으로 불리움]의 결연 이야기와 이들 사이에

난 아들들의 부친 탐색 이야기는 한반도 지역의 창세신화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김현선 35) 제주인 특유의 생활상이나 관념이 표출된 것이라 여겨진다. 제주도 창세신화의 여러 자료들 중에서 다음에 그 일부를 소개하는 세 가지는 여성이 남성의 사랑을 얻는 적극적 능동적인 구애방법을 잘 보여준다. 나머지 다른 이본(異本)들로 말하면, 천지왕에 대한 지상국 부인의 구애 방법이 더 소극적 수동적이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같은 화소의 부분이 결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주의 적극적인 여성상에 대한 신화적 표출을 가려내는 본 논고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겠다.

1.1.1.1. 『무가 본풀이』(232쪽)에서, 천지왕은 지상세계를 다스릴 아들을 낳기 위하여 땅위로 내려와 바구왕네 집에 목기로 하고 그의 딸과의 동침을 원한다는 말을 하는데, 바구왕이 딸에게 차마 그런 말을 전하지 못하자 이를 안 딸 서수암이 자원하여 천지왕이 자는 곳을 찾아간다. 천지왕은 그녀의 대담한 애정표현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여자가 남자의 침소에 먼저 찾아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여자의 방으로 찾아가는 묘안을 택한다.

[그 날밤인 서수암이가 등불을 들린 천지왕 방으로 들어간다. 천지왕은 인기척 소리가 나란, “거, 누게냐” “서수암이 올습네다.” “괴웁흐다. 느 방으로 나고가라.” 서수암인 애삭흐연 지 방으로 돌아온다. 뒷날 밤인 이 날 저 날 야즈시(夜子時)에 천지왕이 등불을 들르고 서수암이 방으로 완 서수암이 ㄱ라 “지나간 밤, 나 곶은 말에 느가 애삭흐였느냐. 남즈가 예즈 방을 좇아가야지 예즈가 남즈 방을 모녀 가는 법이 아니다. 늘ㄱ라 문첩흐노라.” 그 날밤은 천지왕짱 서수암이가 천상배필 시겼구나]

1.1.1.2. 『朝鮮巫俗의 研究』(289쪽)에서, 박이왕은 천주왕[천지왕]의

침방에 몰래 들어가서 옥빛으로 머리를 빗는데, 머리 빗는 소리는 바로 남자에게 보내는 사랑의 신호이다.

[일만군사 대접한 후 천주왕이 자는 밤중에 옥얼내기[玉빛]로 머리 빗는 소리가 나니, 이상하다 하고 백주노파안티 무르난 우리 딸에깁니다 하난 불너본즉 월궁선녀 갓흔 아끼씨라, 그 날밤부터 배필을 삼아서 살다가 삼일 후에 옥황으로 올라가려 하니, 천주왕께서 올라가바리면 저는 엇지 살며 만약이 자식이나 나면 엇지함내까 하난, 부인은 박이왕이 되야 인간 차재하고 자식이란 너커든 일흠을 대별왕 소별왕이라 짓고 ...]

1.1.1.3. 『風俗巫俗』(72-3쪽)에서, 박우왕[총명아기의 부친]은 그의 딸과의 동침을 원한다는 천지왕 간청을 듣고도 이를 선뜻 수락하지 않자 총명아기가 나서서 천지왕과의 동침을 자청하면서 부친의 허락을 얻어낸다. 천지왕은 총명아기가 목욕단장하고 자신의 침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대담한 구애행동을 수락은 하면서도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구애표시를 해버렸으니 인간세상에 부정한 일이 많이 생길 것임을 예고한다.

[천지왕은 박우왕 보고, “딸을 내 방으로 보내어 주시오” 박우왕은 대답을 아니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긴 한숨 짧은 한숨 하면서, “지금까지 잘난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하는데도 내여주지 않았거든 하룻밤 자고 갈 객이니 나의 딸 하나 있는 것을 달라고 하니 이런 원통한 것이 어디 있으랴” 대성통곡하여 가니 총명이가 부친 박우왕 전에 물어보기를 “무슨 일로 통곡하십니까?” 박우왕이 말하되, “저 방에 온 손이 너를 자기 방으로 보내라고 하는고로 통곡하노라.” 총명이가 말하되, “저 방에 온 손님은 천주왕입니다. 천주왕보다 더 나은 사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우왕이 급히 놀라서 총명아기에게 말하되, “그러면 목욕단장하고 천주왕을 잘 모셔라.” 총명이가 목욕단장하고 천주왕 방으로 들어가니 천주왕이 말하되, “나비가 꽃을 찾을 건데 꽃이 나비를 찾으니 인간세상에서는 거꾸로 되는 일이 많겠다.” 그리하여서 하룻밤만 자고 나가려 하니 총명이가 말하되, ...]

1.1.2.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적극적인 구애방법

임진국 대감과 김진국 대감이 공동으로 기자불공(祈子佛供)을 올리고 오면서 두 집안에 남녀가 태어날 경우에는 결혼을 시키자는 이른바 구덕혼사 약정을 하였는데, 임진국 집안에는 딸이, 김진국 집안에는 아들이 태어나지만, 가난한 김진국 집안에서는 부자인 임진국 집안과의 혼약을 이행할 엄두를 못 내고 머뭇거리고 있자 임진국의 딸 원강아미가 나서서 부친을 설득함으로써 양가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원강아미가 부친을 설득하는 방법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것은 자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크지만, 이 딸의 주장에 의해 혼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는 공통되고 있다.

1.1.2.1. 『무가 본풀이』(84쪽)에서, 임정국은 자기 딸에게 말하기를, 짐정국[김정국]이 구덕혼사 치르자고 말하고 싶어도 가난한 자기 신세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하자 딸은 계집자식을 두고 욕심부리지 말자는 말로써 허혼을 당부한다. [“설룬 얘기가, 그렇게 아니며, 나도 얘기 엇고 짐정국도 얘기 엇언 곶이 간 수륙[공양]들언 돌아오명 내가 말을 흙을 … 구덕혼술 흡시덴 곶안 놔두난, 이제 느네가 으그니 혼술 흡시덴 곶지 그리와도 말을 못흐는 것 곶오다.” “짐작지아니흔[짐잖은] 어른이 오란 말을 곶젠 흐당 못흐영 감시난 오직 속이 상흐여쑤광. 지집즈속 흐나 아이난 썸 치영 허흔 흐여뵈서.” 애이구, 설룬 얘기 감스흐다. 얘기신디 분분 반양. 버금을[다음은] 짐정나라가 오난, “근본 흐인 말대로 혼술 흡시다.”]

1.1.2.2. 『이용옥 심방 본풀이』(170-171쪽)에서, 원진국[임진국]의 딸 월광아미[원강아미]는 부친이 자기를 가난한 집 아들 사라도령에게 시

집 보내기를 주저하자 구덕혼사를 실천하여 자기 복력대로 살기를 간청하고 나선다.

[이름 지완 이 아기덜 혼인할 때가 돼어간 원진국 대감님 똥 월광암이신딘 하간 디서 중신이 오라도 대답을 아니 헤영 “애야 느 시집 가라” “아이고 난 마우다” “무사 아니 갈 티?” “나 더 잇당 촌촌히 가쿠다”, 이편 저편 허는 것이 시집 아니 간다. 사라도령 중신을 오난 대번척이[즉시] 대답하여 간다. “아이구 애야 그 집이 가난허 곡 서난허곡, 영 현 집이 강 어뎡 살티?” “아버지야, 그 동안 굶은 말을 잇음데가? 법당에 간 수록 드런 오멍, 무시거엔 굶음데가? 구덕혼서헌 건 누집니까? 잘 살아도 나 팔저고 못 살아도 나 복력이난 나, 사라도령안티 시집 가오이다에.” “어서 걸랑 개영 허라.”]

1.1.2.3. 『風俗巫俗』(49-50)에서, 부유한 원진국은 자기 딸 원양낭자를 가난한 김진국의 며느리로 보내는 것을 마다하는데, 이를 안 원양낭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강단을 쓴다. 즉, 양가의 구덕혼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승차사가 온다는 흉몽 이야기를 지어내 일러바침으로써 사라도령과의 혼인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다른 이본들에 비해 딸이 부친을 설득하는 열성이 가장 돋보이며, 사라도령편에서 자기네 집 가난 때문에 혼사 얘기 꺼내기가 어렵다는 하소연을 한다는 점에서도 애뜻한 애정극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귀여운 원강아미야, 무슨 일로 보러왔느냐” “아버님, 저는 아주 흥한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느냐” “어떤 백발 노인이 말하되, 너의 부모가 부처님 앞에서 약속을 하였는데 그 약속을 어기니 모랫날 사오시로 삼차사가 내려와서 너를 잡아 가느니라. 그리하여 두고 노인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누구하고 무슨 약속을 하였길래 이런 무서운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까?” “너를 얻을려고 부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김진국 대감님과 약속을 하였노라.” “... 저를 살리려거든 사라도령한테 시집을 보내주십시오.” “아, 저기는 농사지를 밭도 없는 집이 아니냐” “아버님아, 우리 많은 농토는 어느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반만 농사지어도 아버님네 일생

먹고 쓰다 남을 것인데 왜 그러십니까?” “귀여운 아기가, 그 생각을 미처 못하였구나. 원앙아, 울지 말거라. 김대감을 청하여서 허훈을 하겠노라.”]

1.1.3. 삼공본풀이에 나타난 적극적인 구애방법

강이영성의 막내딸 가문장아기는 부모에게서 쫓겨나 헤매다니다가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는 마통이네 집 3형제 중에서 한 아들과 동침하기를 자원하지만 결국에는 막내아들과 동침하게 된다. 가문장아기의 동숙자로 막내아들이 정해지기까지의 스토리는 이본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진다. 이본에 따라 가문장아기의 구애방법에서 그 적극성과 분별성에 다소의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이같은 차이를 중심으로 하는 삼공본풀이 화소는 대체로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듯하다. 첫째는 동침할 아들의 선택을 아들들 모친에게 일임하는 것이고, 둘째는 막내아들을 지칭하면서 동침을 청하는 것이고, 셋째는 막내아들을 지칭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이고, 넷째는 장자의 침소부터 차례로 직접 찾아가서 동침하기를 청하는 것이다. 어느 유형의 화소에서든 결과적으로 가문장아기와 동침하는 남자는 막내아들로 낙착이 되는데, 하여간에 이불 속 온기를 얻기 위하여 ‘밭 막아 누울’ 남자가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우는 그녀의 구애행동은 대담한 것임에 틀림없다.

첫째 유형에 속하는『제주도신화』(86쪽)에 보면, 가문장아기는 하룻밤 동침할 아들 하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만 어느 한 아들을 지칭하지는 않고 아들들 모친에게 그 선택을 일임한다. 모친의 분부를 들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싫다고 했고 막내아들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여서 두 남녀의 백년가약이 맺어진다.

[저녁이 끝났다. 모두들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가문장아기는 혼자 자는 것이 섭섭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더러 나하고 밭 막아 누울 아들이나 하나 보내십사고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큰 마둥이더러 가라고 했다. 아니 갔다. 둘째 마둥이더러 가라고 해도 아니 갔다. 하릴없이 작은 마둥이더러 가라고 하니, 기뻐하면서 들어가는 것이었다. 길에 구르는 돌멩이도 연분이 있는 법. 돌이는 꽃을 본 나비라 백년 가약이 맺어졌다. 가문장아기는 작은 마둥이를 목욕시키고 새옷을 갈아입혀 갓 망건을 씌워 놓으니 절세미남이 분명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내용의 본풀이는 이외에도 『무가 본풀이』(100쪽)와 『서사무가』(130-131)에 채록되어 있다.

둘째 유형에 속하는 『風俗巫俗』(67-68쪽)에 보면, 가문장아기는 마둥이네 모친에게 3형제 중에서 큰아들을 지칭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장자 우선의 관습을 존중함일 것으로 추정된다.

[저녁을 끝낸 후에 손님이 말하되, “발이 차가우니 나의 방으로 와서 발을 막아주러 맏아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맏아들아, 손님이 발을 막아달라고 너를 보내라 한다.” “참 별말을 다 하네.” “둘째 아들이, 네가 들어가거라.” “나는 싫소” “막내아들, 너 들어가라.” “예.” 막내아들 들어가니 “어서 오십시오” 향물로 목욕시키고 신랑으로 검은머리 희도록 살 것을 약속하고 느진덕정하님은 발을 새워 신방을 다 갖추었습니다.]

셋째 유형에 속하는 『朝鮮巫俗의 研究』(270쪽)에 보면, 가문장아기 스스로의 선택이 뚜렷이 부각되는데, 작은마둥이가 식사중의 효행과 따뜻한 손님맞이 등 인간성의 매력이 자기 형들보다 뛰어난을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신랑감으로 낙점하는 적극성과 지혜를 발휘한다.

[말젓아덜[막내아들] 마 파고 와서 었던 손님 드렸습니까 무르니, 어멍 말삼이 길 가다가 날이 점으려 드러왔다 하니, 잘 유숙케 하였습니다 하고 마를 삶아서 한 잔동은 모친전 올리고 윗목은 손님에 되리고 출리[꼬리]는 자기가 먹으니, 그 마음씨 고흔 것을 칭찬하고 아기씨 밥을 지어서 주인에게 모다 데접하고 그 날 밤은 주인 말젓아덜을 불러서 목욕시키고 의복 한 벌 내 자입히고 부부가 되기로 인연을 맺저서 사니 큰아달들은 매우 불러히 생각하야 우리도 저런 각사니 어뎡 살보왔스면 부뤄하옵내다.]

넷째 유형에 속하는 『이용옥 심방 본풀이』(201쪽)에 보면, 가문장아기는 장자의 침소부터 차례로 찾아가서 동침을 청하고 있는데, 첫째와 둘째 이들은 이를 거절하고 막내아들만이 이에 쾌히 응락하여 이들간에 부부의 인연이 맺어진다.

[그 밥상을 다 설러두언 가문장아기, 이젠 밤은 속속 짙어가고, ‘어딜 강 누민 좋코, 큰마통이 녹는 방문에 간 열아네 “큰마통이넘아 나, 요 발에라도 오닐 밤만 지새게 흐끔 누쿠다” “어이구, 짐집이라가난 … 발에까지 누켄헤염져 당장 나고라.” 후육누육 옥을 하여간다. 셋새마통이신디 가도 그와 7찌 후육누육 옥을 하고, 죽은 마통이신디 간, 아이고, 요 발에라도 흐끔만 몸짬이라도 췌우쿠텐 흐난 “어서 기영 협셔.” 그 죽은마통이 발에 간 녹는 게 서로가 부베가 뉘어간다.]

1.1.4.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적극적인 구애방법

세경본풀이에 나타난 자칭비의 적극적인 구애방법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연구가들에 의하여 충분히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간단히 요약만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자칭비는 문도령과의 사랑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자기 집안에서 사내 아닌 여식(女息)이 공부해야할 필요성을 부모에게 역설함으로써 남존여비 사상에 몰들어 있는 그들의 동의를 얻어낸다. 그녀는 또한,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가 있는 동안 전략적으로 취했던 남장여인의 행색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가 이를 풀 때가 되자 지체없이 위장의 비밀과 사랑의 본심을 고백하는 글을 띄워 남자에게 보내며, 공부를 끝내고 오래만에 자기네 집에 돌아온 날 밤에는 문도령을 여자친구로 위장시켜 부모에게 소개하고 신방 차린 다음 함환주 건배에 이르기까지 첫날밤의 남녀상열지사를 앞장서서 성사시킨다.

1.1.5. 금악리 본향당 본풀이에 나타난 적극적인 구애방법

금악리 본향당 본풀이에서, 정좌수 딸과 최지국 아들은 산에서 만나 힘겨루기를 하는데, 남자는 여기에서 여자에게 손목 잡혀 나무에 묶임을 당하고는 누님 호칭을 쓰면서 통사정을 했다가 나중에는 비에 흠뻑 젖은 몸으로 여자의 집에 찾아든다. 그러나, 여자는 가없는 모습의 이 남자를 미래의 남편이라고 부모 앞에서 선언함으로써(『무가 본풀이』 567) 긴장감 넘치는 구애 장면을 연출한다. 처음부터 남자의 기세를 압도함으로써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하다는 선입견을 불식시키며, 남자가 극도로 무력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를 잡아 칭찬하여 초반 제압의 막강한 여성 파워를 과시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제주 여성의 강인한 자기주장 욕구가 엿보인다 하겠다.

1.2. 강인한 자활능력의 소유자이다.

위에서 우리는 제주신화의 여성 주인공들이 어떻게 적극적인 구애행동을 보여주는지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제주신화의 할망신들이 얼마나 강인한 자활능력을 보여주는지를 살펴볼 차례이다. 그들의 뛰어난 자활능력은 한번 정해졌던 배필관계가 틀어져서 홀로살아가 될 경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주신화의 할망신들은 처음 얻은 남편에게서 떠나가서도 충격이나 피해를 입지 않고 의연히 독립자활하는 당찬 생활을 영위한다. 헤어지는 하르방신을 원망하거나 욕하는 대목도 찾아볼 수 없고, 하르방신의 보호 그늘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의기소침하거나 실망하지도 않는다. 배필관계가 중단되는 것은 대개의 경우에 하르방신이 할망신을 내쫓기 때문이고 할망신이 내쫓기는 것은 대개가 할망신이 돼지고기를 몰래 먹는 등 이른바 ‘똥피기 부정’을 저지른 탓이다.¹⁾ 그러나, 할망신은

내쫓김을 당하면서도 의연하다. “뚝괴기 부정으로 ‘벼름알’로 쫓겨난 할망신들이 결코 기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신령스러운 위엄을 발휘하고 있는 것(하순애 133)”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하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구애행동을 보여주는 제주신화는 일반본풀이임에 반하여 강인한 자활능력을 보여주는 여성들은 각 마을의 본향당 본풀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을 신당의 하르방신에게서 버림받은 할망신은 버림받기 이전과 비교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별로 없다. 각 마을의 신당을 중심으로 마을사람들을 단골관계로 결속시켜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지배하는 것은 곧바로 그 신당에 좌정한 남녀 신들의 유복함 여하를 결정하게 되는데 하르방신에게서 쫓겨난다고 해서 할망신의 지위에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1.2.1. 송당리 본향당 본풀이에서, 외래의 여신 백주또는 한라산의 소천국 하르방신과 결혼하여 송당리에 거주하며 남편을 사냥꾼에서 농사꾼으로 만들지만, 거식가인 남편이 남의 집 소까지 잡아먹었다고 빠져서 웃송당으로 가더니 독자적으로 당오름 일대를 차지하는 여신이 된다. 남편의 행동에 반대하는 백주또는 단호하게 살림 분산을 제안하지만 그 결과 여성의 지위에 손상됨이 없고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인 웃송당을 차지하며, 살림을 가르 다음에도 혼자 힘으로 수많은 자식들을 키우는 억척스러운 생활력을 과시한다.

[“당신 소 잡아먹은 건 예상사지만 남의 소까지 잡아먹었으니 소도독놈 말도독놈이 아니냐, 살림을 분산합시다.” 백주또는 화를 내며 바람 위로 올라서고 소천국은 바람 아래로 내려서서, 백주또는 당오름에 가 좌정하고 소천국은 알손당 고부니 마을

1) 제주신화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부정한 일로 인식되고 있어서, 할망신이 밖에서 묻혀온 돼지고기 냄새 때문에 하르방신으로부터 질책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에 와 좌정하였다.] (『제주도신화』 241)

1.2.2. 외도동 돛당 본풀이에서, 짐씨할망과 송씨할망이 좌정하여 다스리던 것이 제주시 외도동 본향당이었는데, 어느 날 송씨할망이 ‘돛괴기부정’을 저질러 존경내를 피운 탓에 화가 난 하르방신에게서 꾸중을 듣는다. 이 일로 송씨할망신은 ‘비름알로’ 있는 내도동 소재 해촌인 ‘두러빌레’로 쫓겨가고 짐씨할망은 외도1동 소재 ‘우렁이막술’로 좌정한다. 송씨할망이 애초에 좌정해 있던 외도동 마을에서 쫓겨나 해촌으로 내려갔다고 하지만, 이 여신이 ‘요왕제 들이레 갈 때엔 본향할망 거늘름’을 받고 치성드림의 대상이 되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짐씨할망은 들어오명 “어명하난 할망 우티로 존경내가 남쭈가?” 하난, 송씨할망은 스실을 말하고, “돛괴기 먹고판 뒷간에 갔단 돛술 돼지털] 하나 빠단 콧궁기레 디돌안 기시리난 먹은간 쥔간 존경내가 남쭈다.” 하였수다. 할망이 용심을 내고 “존경내가 나니 하디 살 수 엇이때 비름알로 느려사라”고 하연 살림을 갈란 짐씨할망은 우렁이로 간 본향으로 좌정하고, 송씨할망은 해촌으로 내려간 두러빌레 숨비날알로 좌정하였수다.] (『무가 본풀이』 353)

1.2.3. 평대리 ‘수데깃 서당할망’ 설화에서, 할망신은 원래 강원도 철산에서 들어와 하르방신 신선또를 만나 부부가 되었는데, 할망신이 ‘돛괴기 부정’을 저지른 결과 살림을 가르면서 두 신이 모두 좌정처를 옮긴 결과 하르방신은 마을 안 심방네 집으로 들어서고 할망신은 마을 밖으로 나가 좌정한다. 할망신은 마을 밖에 좌정하였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자유를 누리며 온마을의 병환과 우환을 통어하면서 폭넓은 단골을 거느리게 된다. 이 할망신의 영험한 위세는 심방들이 들려주는 본풀이, “마흔여덟 상단골도 굶어보고, 설흔 여덟 하단골도 굶어보고, 스물여덟 하단골도 굶어보고, 모든 단골의 온갖 정성을 받습니다”와 같은 구송에서도 나타

난다(히순애 133-4). 수데깃 할망신의 위세는 나중에 이루어진 신당 위치의 변동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원래 돛피기를 먹지 않던 하르방신이 차츰 ‘돛피기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면서 마을사람들은 하르방신의 좌정처를 할망신 옆에 더부살이처럼 옮겨놓은 것이다.

[흐로은[하루는] 돛피자국[돼지발자국]에 물이 벤직벤직혀여시난 뻬레기를 내연 그 물을 뻬라먹으난 돛술이 콧구기레 박아지연, 그레 놀뻬내광 놀낭내가 났수다. 할으방은 그영 혼 스실을 알아놓고, “큰 부인 노릇 못혀겠다. 당 갈르고 물 갈르라” 혀연 사념을 갈롭디다. 할망은 지경 백겨딜로 짐 짓언 나아얏고, 할으방은 가름 안심방칩으로 모시고 경 흐난 할망은 돛피길 반양 잡수곡 할으방은 몹고 몹은 음식뻬긴 안잡수난, 수되깃당으로 간 좌정혀엿수다. 지금도 누계라도 어덜 아프나 괴로우나 죄우느뻬[이질]이 들엇을 뻬 이 할망상에 도새기 잡앙 올려사 풀어지곡 뻬도 낮곡 흙네다.] (『무가 본풀이』 430-431)

1.2.4. 월정리 본향당 본풀이에서, 구렁이로 변신했던 황정승 딸은 신산국과 배필이 될 것이라는 점괘를 얻어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월정리 비석거리에서 사냥중인 이 청년과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고 천정배필이 된다. 월정리 마을 안에 서당머체에 좌정하여 서당할망으로 불리게 되었으나 어느 날 일곱 아이를 데리고 동네집 잔치에 다녀오는 길에 목마름을 느낀 나머지 돼지발자국에 고인 물을 빨아먹다가 돼지털에 코를 찢리고 그 돼지털을 불에 그을려 먹는다. 사냥에서 돌아온 신산국이 존경내난다는 구실로 살림을 분산토록 한다. 이 말에 대해 서당할망은 남편의 도포자락을 얼른 잡으며 “내 살 도리도 마련해두고 가십시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계보장을 요구한다. 이를 계기로 월정리 마을에서는 돼지를 잡아올리며 여드렛당의 서당할망신에게 치성을 드리는 돈제법(豚祭法)이 마련되었다. (『제주도신화』 254-5)

1.2.5. 신평리 자원당 본풀이에서, 신평리의 자원당(자운당)은 당신(堂神)에게서 소박맞은 할망신이 자립자활의 길을 열기 위해 설립된 당이다. ‘부정한 물’을 빨아먹은 탓에 남편에게서 타박을 당하는 할망신은 큰부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가마 타고 시집을 오는 신부로 나오기도 한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들에서 보듯이, 시냇가 부정한 물을 빨아먹은 큰부인이나, 시집 오는 가마 안에서 갈증을 참지 못해 길바닥 말발자국에 고인 부정한 물을 빨아먹은 새색시나, 냇가에 별도로 신당을 마련하여 독립된 당신으로 당당하게 좌정하고 있다. ,

[신평 본향의 큰부인이 냇가 물 먹어오니 본향 한집(堂神)이 “부정하다” 하면 내조차부난 냇가에 간 좌정헌 당이우다. 이 므실서 므쉬를 일러불민 이 당에 강 벌곡 므쉬 좇아 줌생 헌민 므실 좇아주는 영급헌 한집님이우다.] (『무가 본풀이』 451)

[냇기 양스또[신평리 당신]가 토산당의 개로역한집을 소실로 들안 올 때에, 개로역한집이 가매쏘곱이서 애가 광광 물란 물 먹구정헌연 가매알로 느련 질헤 몰콥엿 물을 보릿낭 뽕래기로 빨아먹고 ... 노린내가 탕천헌니 양스또가 하는 말이 “큰부인 노릇 못 헌키여, 부정헌니 냇창물이나 하영 먹영 살라” 헌연, ... 가는 오는 사람들의 제인정을 반양 삼네다.] (『무가 본풀이』 450-451)

1.2.6. 어음리 비매닛당 본풀이에서, 할망신은 ‘뚝괴기 부정’을 저지른 탓으로 하르방신한테서 버림을 받으나 마을 아래에 따로 좌정하여 당신이 된다.

[할으방은 동산당인디 브름우로 좌정헌고 할마님은 브름알로 알넉밭이 좌정헌여 상을 받읍네다. 초담에 산신백관으로 할망 할으방이 헌디 느려오단 하도 애가 썬지난 뚝짓자국에 물 빨아먹언 느려와시난 할으방은 “존경내가 과하다. 어떤 일이나?” 헌연 ...] (『무가 본풀이』 602)

1.2.7. 삼공본풀이에서, 강이영성이서불의 셋째 딸 가문장아기는 누구 덕에사느나는 부모의 질문에 대해 “배또롱 아래 선그릇의 덕으로 먹고 입고 행우발신힙니다”(『제주도 신화』 79)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부모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일궈나가려는 한 여성의 주체성”(조현설 297)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신의 당찬 선언처럼 부모의 보호 그늘을 떠난 가문장아기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자신의 운명을 감연히 개척해 나간다. 쫓겨난 여자의 발복(發福) 이야기인 <내 복에 산다> 유형의 민담이 본토에도 전해지고 있음이 사실이며, 타지역 신화와의 차별성이 비교적 약한 일반본풀이에서 제주 여성의 자활능력 표출을 찾는 데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주도의 본풀이처럼 이 유형의 민담이 전상신[前生神; 運命神]의 이야기로 변형되어 전승되는 예는 타지역에 없음(조현설 296)을 감안하면, 가문장아기의 발복 이야기는 제주 여성의 자활의지를 말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2. 애정실현의 현실적응력이 강한 여성

제주신화의 일반본풀이나 본향본풀이에 나오는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는 수다하게 많으며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불행한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음이 주목할 만하다. 제주신화의 사랑 이야기가 별로 불행한 결말로 끝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여성 주인공들의 현실적응력이 뛰어난 결과라고 생각되어 우리의 흥미를 자아낸다. 사랑의 위기에 부딪칠 때 제주 여성들은 이를 지혜롭게 타개하며 매우 원만한 결말을 이끌어 낸다. 또한, 남편이 혼자서 해결하지 못하여 고민하던 문제를 쉽게 풀어내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서 이를 가지고 유세를 한다거나 남편의

무력함을 나무라는 일이 없이 자연스럽게 마무리됨으로써 여성의 지혜가 오히려 당연시되는 것도 같다.

2.1. 체제에 거역하기보다는 순응한다

제주신화 여성 주인공들의 애정구현에서 드러나는 뛰어난 현실적응력은 우선 그들의 체제순응적 행동에서 나타난다. 대체로 그들의 애정욕구 방향은 체제존립에 거역하거나 체제적 이데올로기에 도전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그들의 애정구현은 사회체제의 기존 질서에 큰 동요를 초래하지 않고, 그것은 결국 사랑의 비극적인 결말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서, 남존여비의 성차별 이데올로기, 부모와의 의견 합치, 가문의 위신 등 사회 질서의 존립기반을 존중함으로써 사랑의 실패를 미연에 막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랑 문제를 두고 부모자식 사이에 다툼이 별로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있어도 큰 충돌은 피하면서 화해를 이끌어 내어 세대간의 갈등이 별로 부각되지 않는다.

2.1.1. 천지왕 본풀이에서, 총명야기는 천지왕이 자기에게 구애의 뜻을 갖고 있음에 대해 부모로부터 그 간접적인 시사만을 받고도 즉시 승낙의 태도로 나온다. 그녀는 천운의 축복이 예정된 배필임을 알고는 천지왕의 구애를 선뜻 받아들이면서 그보다 더 훌륭한 신랑감이 어디 있겠느냐고 어머니에게 묻는다.

[“어머남야, 나 나이 이제 열으섯 아니우파, 그런 천지왕 같은 사월 흥여질 것 같으면 미신 분합을 훑네까.”] (『무가 본풀이』 232)

*『風俗巫俗』(73)에서도 이 같은 뜻의 대사가 나온다.

2.1.2. 이공본풀이에서, 원강아미는,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자기 아

버지로 하여금 옛날에 맺었던 자신의 구덕혼사 언약을 지키도록 하느라고 애를 쓴다. 그녀는,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사라도령을 사위 삼지 않으려 하는 아버지에게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혼약 준수라는 대의명분이 더 중요함을 납득시키고 있는데 이는 기존 사회질서의 수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체제순응적 행동이라 생각된다. 자기 자신이 결혼 상대자를 선택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고 아버지가 해놓은 혼약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인 것이다(이 대목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1.1.2. 부분 참조). 그녀의 결혼은 그것이 양가 부모의 구덕혼사 약정을 지키는 것인 한 두 가문으로부터 명예를 건 보호와 참견을 받을 것임이 처음부터 예견된다 하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결혼에 이른 원강아미가 생애의 후반부에 와서는 자기 남편과 아들에게 자기 삶의 의미를 떠맡기는 형국이 되고 있는데, 그녀가 세 남자에게 결부된 자신의 처지를 속박으로 여기지 않고 열정적인 사랑과 헌신의 생애를 살았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다. 전통사회 한국 여성의 이른바 삼종지덕(三從之德)을 연상케 하는 대목인 것이다.

2.1.3. 초공본풀이에서, 노가단풍즈지멩왕아기씨는 자기도 모르는 동안에 주자선생에게서 사랑을 받고 아들 3형제를 잉태하지만, 오래전부터 예정되어진 불가항력의 운명에 대해 거부할 생각이 없다. 아기씨는 이 일로 인하여 부모에게서 쫓겨나는데 이들이 이별하는 대목은 제주신화에서 불효 또는 부정한 행위로 인해 부모의 버림을 받는 자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즉, 전래의 가규를 어긴 자식은 부모에게서 쫓겨나지만 내 쫓기는 자식은 부모의 말을 거역하거나 원망하는 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출로 인하여 불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의 고난 끝에 더 큰 행운의 기회를 잡게 된다. 또한, 부모가 집 떠나는 딸에게

옷가지를 실은 검은 암소를 함께 달려보내는 예에서 보듯이, 부모는 자식을 내쫓으면서도 확실한 자식 사랑의 징표를 보여주고 있다.

2.1.4. 삼공본풀이에서, 집 쫓겨난 가문장아가 마통이 형제네 집에 당도하여 일박을 청하면서 ‘밭 막아 누울 남자’를 원한다는 명분으로 구애표시를 할 때의 행동은 사회규범과의 충돌을 피한다는 뜻에서 매우 체제순응적인 것이라 생각된다. 이 부분은 자료에 따라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이 논문 1.1.3. 부분 참조), 어느 남자라고 지칭함이 없이 형제들 중에 아무하고나 같이 동침할 수 있도록 마통이네 모친에게 청하거나, <장자 우선>의 관습에 따르는 듯 말아들을 보내달라고 함으로써 혹시 있을 수도 있는 혼란이나 마찰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자료에서는 3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을 택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의 응대가 우호적임을 확인하고 난 다음의 일로서, 3형제 중에 누구든지 자기처럼 당찬 여성과의 동침 지원자야말로 바로 자기가 원하는 배필이 될 만하다는 지혜로운 대응이라 할 것이다. 가문장아가 부모의 마음에 거스르는 대답을 한 것을 두고 권위주의 체제에 거역하는 행동이라는 해석을 하는 이도 있지만, 그녀는 부모의 질문이 운명의 거대한 힘보다 자신들의 소소한 은공을 앞세우는 것이어서 이를 일깨우는 소신있는 대답을 함에 있어서 체면불구했다는 것이지 부모에 대한 인륜적인 불순종으로까지 가지는 않았다는 해석을 하고 싶다. 나중에 천하거부가 된 가문장아기는 장님이 된 부모를 거지잔치에 초청하여 응분의 보답, 말치레가 아닌 실속있는 보답을 하고 있는 점도 유의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2.1.5.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주천강 연못가에서 만난 문도령이 거무선생한테 글공부 가는 길임을 알자 급히 집에 들어가 남장을 하고

나와서 그와 동행함으로써 3년간 동거동학의 기회를 잡는다. 여성의 성역할에 한계를 두는 가부장 사회의 체제이념에 순응하기 위함이다. 자청비는 그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남장여성이라는 지략을 활용하여 여성의 한계를 극복한다. 거무선생이 남장한 자청비의 여자 같은 몸매에 의문을 가지고 요청하는, 탄탄한 가슴 만져보기, 속옷 입고 달리기, 오줌발 멀리 달기 등 테스트에 임기응변의 지략으로 잘 통과하여 여성의 몸으로 하기 어려운 서당공부를 오래 지속시킨다. 죽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서천꽃밭 환생꽃을 구하러 갈 때에도 서천꽃밭 경내의 난리를 평정하는 남장무인의 행색을 취하여 꽃감관의 사위로 들어간다. 그녀는 문도령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남녀차별적인 사회체제에 반항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타협적인 방법에 주목할 때, ‘그녀는 영웅적인 기지와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구사회제도의 개혁이라는 것을 전연 실현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평(『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126)도 나올 만하다 하겠다. 연못가에서 물 한 그릇 달라고 청해 온 남자가 하늘나라 왕자의 신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환심을 사고 싶었을 것이고 그와 사랑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남장 동행이라는 대담한 발상이 나왔을 것이라고 본다면, 자청비의 체제순응 성향은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문도령의 과실에 대한 자청비의 대응에서도 순응적임이 드러난다. 문도령은 서수왕 딸과 결혼하라는 부모 요청의 수락이나 번번히 일어나는 재회약속 불이행처럼 남자의 성역할 수행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만, 이에 대한 자청비의 무골호인적인 반응 같은 행위는 현실타협적인 체제순응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끝으로, 자청비는 능력이나 책임성의 면에서 자기보다 훨씬 떨어지는 문도령에게 상위 농경신인 상세경의 신직을 갖도록 한다. 지상세계 농경신의 지위를 얻도록 만들어준 자신의 노력과 공적을 알면서도 중세경으

로서의 차석(次席) 신직을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성우위 이데올로기 사회체제에 순응하는 것이요, ‘농경사회에서 지모신적인 역할은 천신의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좌혜경 342)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2.1.6. 토산리 여드렛당 본풀이에서, 토산땅으로 들어오던 나주 금성산의 처녀신령은 양반차림의 개로육서또에게 손목을 붙잡힐 때는 이를 뿌리치고 은장도로 자기 손목을 깎아버리는 도도함을 보이지만, 이 말을 들은 용왕황제한테서 후욕을 듣자 이를 후회하고 동산 위로 올라가서 이내 호의적으로 태도를 바꾸고는 가버린 남자를 소리높여 부른다. 그녀의 태도를 바꾼 후욕의 내용인즉 이 남자를 따라갔으면 먹을 걱정 아니해도 될 뻔했다는 것이니, 배필을 정함에 있어서 그녀의 기준은 자기의 취향과 개성이라기보다는 안일한 세속 기준에 머물러 있다. 세 번 불러서 대답이 없자 이들의 만남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이들 남녀가 좌정한 신당 사이에는 신불(神火)로 통신하고 언약을 나누는 화합관계가 된다. (『제주도신화』 284)

2.1.7. 서귀 본향당 본풀이에서, 자매 사이인 고산국과 지산국은 한 남자를 놓고 두 여자가 사랑하는 비운에 처해 있으나 자신들의 사랑의 욕구를 적정선에서 절제하고 한정시키면서 현실적인 애정 삼각관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애정과탄의 비극을 막고 있다. 이 본풀이의 여성들이 애정 구현의 과정에서 별다른 장애에 부딪치지 않는 것은, 애정의 상대를 선택함에 있어서 과욕을 부리지 않는 순응적인 행동에 크게 힘입고 있다. 그들은 사랑의 욕구수준을 순수 지고의 비현실적인 높이에 두지 않고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한 애정 행로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2.2. 성 역할의 기대에 지혜롭게 대응한다.

제주신화 여성 주인공들의 애정구현이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요인은, 체제순응 여하와는 별로 상관없이 한 여성의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혜로운 성 역할 수행에 있다. 여성 주인공 개인으로서의 대담하고 열정적인 성격이나 당면한 현실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뛰어난 감지력이 돋보인다는 것이다.

2.2.1. 세화리 본향당 본풀이에서, 서울 남산에서 솟아난 천하명장 금상님이 세화리의 아름다운 여신 백주또를 배필로 하기 위해 들어왔으나 그녀의 외조부 천자님[천자또]으로부터 돛피기 먹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는 궁지에 몰릴 때, 백주또는 그의 식성을 바꾸어 배필이 될 것을 제언함으로써 [“저리 가는 저 장수님아, 나하고 천정배필이면 먹던 음식을 참고서 천정배필 맺어보기 어쩍니까”] (『제주도신화』 267-8) 부부되는 인연을 만들어 낸다. 돛피기 금식을 약속하여 원하던 결혼에 성공한 금상님은 나중에 피골이 상접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데 이를 본 백주또는 천자님의 허락을 얻어 마을사람들로 하여금 돛제[豚祭]를 올리도록 하고 돛피기 안먹는 자기들과는 상을 따로 차려 먹도록 주선해 준다. 외지에서 들어와 지방의 풍토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자를 지혜롭게 잘 인도하여 남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여성의 뛰어난 성역할 수행이라 할 만하다.

2.2.2. 이공본풀이에서, 사라도령이 서천꽃밭에 꽃감관을 살러갈 때, 임신한 몸으로 따라가던 그의 아내 원강아미가 힘이 부쳐서 도중에 제인장재네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끊임없이 동침을 요구하는 제인장

재의 유혹을 번번히 입담좋은 변론으로 물리침으로써 사라도령에 대한 정절을 지키고 아들 할락궁이가 태어나 무사히 장성할 수 있게 해준다. 탐욕스러운 남자가 재력과 권력을 악용하여 무력한 여성의 정절을 빼으려 할 때, 전통사회 부덕의 강령을 방어논리로 삼으면서도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명분을 내세워 위기를 면하는 것은 탁월한 성역할 수행의 지혜라 할 것이다. 마침내 참다못한 제인장재는 힘든 고역으로써 두 모녀를 괴롭히고 결국에는 홀몸으로 남게된 원강아미를 죽게까지 만들지만 할락궁이의 정성어린 환생꽃 묘방으로써 재생의 기쁨을 맞게 되고 오랫동안 험난하던 사랑의 결말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

[첫번째 유혹에서는 “이 고을 풍습은 어찌하나 모르되, 우리 모을 풍습은 뺨 아기가 나사 몸 허락을 하는 법입네다.” 아들이 태어난 후 두 번째 유혹에서는 “... 낳은 애기 백일이 넘어서 몸 허락을 하는 법입네다.” 그 후 백일이 넘어 세 번째 유혹에서는 “... 낳은 아이가 걸음바를 하고 금마답에서 노닐 놀일 허여사 몸 허락을 하는 법입네다.” 아들 할락궁이가 막대기 말타기 놀이를 할 만해서 네 번째 유혹이 들어왔을 때에는, “... 낳은 아이가 열 다섯 십오 세가 되여사 몸 허락을 하는 법입네다.”] (『제주도신화』 69-70)

2.2.3. 차사본풀이에서, 아들 삼 형제 죽은 사유를 밝혀달라는 과양생 처의 소지(所志)를 놓고 고민하는 김치 원님에게 해결사 역할을 해준 사람은 그의 부인이다. 과양생의 처는 아들 3형제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고 한날 한시에 과거급제하고 한날 한시에 죽어간 원한을 풀어달라는 청원으로 원님에게 하루 세 번씩 석달 열흘 동안이나 이흠상자 넘게 소지 써서 올리고 온갖 악다구니를 펴부었으나, 사람 낳고 죽는 일을 권력을 가지고 밝혀낼 수는 없어 한숨만 쉬고 있을 뿐인 이 남자에게 묘안을 알려주는 것은 그의 부인인 것이다. 부인의 해결방안은, 영걸스러운 관원 하나를 골라내어 그로 하여금 저승의 염라대왕을 데려오도록 하여

이 민원을 풀어주자는 것이다. 염라대왕 잡아올 만큼 똑심있는 천하장사가 강님이라는 관원이고, 그는 열여덟 각시를 영문 안팎에 두고 산다는 것을 안 원님 부인의 묘안은, 관원들에게 일례 동안을 내리 새벽에 긴급 소집령을 내리면 열여덟 각시 찾아다니느라 바쁜 강님이 지참을 할 것이니 이를 구실로 저승의 염라대왕을 잡아오라는 특명을 내리도록 하자는 심산이다.

[원님 부인의 의견은, 염라대왕을 잡아다가 대왕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판결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사람이 나고 죽고 하는 일은 인간인 원님이 알 수 없는 일이고, 염라대왕만이 판가름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강님은 부인을 열여덟씩이나 데리고 있으니 새벽잠으로 해서 미참할 게 분명하고, 그를 몰아대고 있으면 원체 영결이니 염라대왕을 잡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제주도신화』 105)

2.2.4. 차사본풀이에서, 염라대왕을 잡아오라는 명을 원님으로부터 받아놓고 대책없이 고민중인 강님을 도와서 저승나들이의 난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 준 것은 그의 부인이다.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저승을 힘세고 용맹한 남자의 똑심만 가지고 다녀올 수는 없는 일이었다. 강님의 부인은 남편에게 위엄이 넘치는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에다 흑두전립(黑頭戰笠)과 적패지(赤牌旨)로 단장을 하여 저승차사 행색을 만들어 주고 저승 가는 길에 필요한 행장과 음식을 마련해주고 험난한 여정의 무사 안녕을 비는 고사를 지내주고 길안내를 해줌으로써 남편에게 어려운 임무 수행의 의기를 심어준다(『제주도신화』 109-110). 강님의 부인은 열여덟 첩을 거느린 남편한테 천대와 홀대를 받는 설움 속에서 인고와 순종의 세월을 보내는 조강지처이기 때문에 그녀의 성공적인 내조역할은 전통사회의 남존여비 속박을 감내하고 극복한다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2.2.5. 송당리 본향당 본풀이에서, 사냥꾼이던 제주 남자 소로소천국과 결혼한 (강남천자국 출신) 할망신 백주또는 남편에게 농사를 가르침으로써 안정된 생업의 길을 열어준다. 소로소천국은 부인을 통하여 얻은 농경 생업의 기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다시 사냥꾼 시절로 퇴보하고 말지만 남편의 생활문화를 한 단계 격상시켜준 부인의 공적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제주도신화』 241). 또한, 소천국과 백주또의 소생인 송국성은 불효하다는 명목으로 쫓겨났다가 이역 땅에서 큰 전공을 세우고 금의환향하는 것이 용왕국 셋째 딸을 아내로 얻은 덕분으로 나와있다(전계서 244-247).

여성의 협력이 남성의 삶의 방식을 개선시켜주는 예는 삼성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삼성신화에서 벽랑국의 세 공주는 사냥꾼이던 3올라 형제들에게 오곡의 씨앗과 가축을 선물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업의 길을 열어준다(전계서 22). 3올라 건국신화가 얼마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현재 문맥에서 중요하지 않고, 여성의 절대적인 협력에 의해 남성의 생존방식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우리의 선조들이 생각하였다는 발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2.2.6. 세경본풀이에서, 자칭비가 지혜롭고 당찬 행동력으로써 성역할을 수행하는 예는 빈번하다. 자칭비는, 서당에 글공부 기는 문도령을 처음 만난 주천강 연화못에서 목이 마른 문도령이 마실 물을 청하자 갈대잎을 따서 물바가지에 띄어줌으로써 여자에 대한 남자의 믿음과 환심을 얻는다. (『무가 본풀이』 273)

문도령과 오랫동안 헤어진 몸으로 ‘천태산 마귀할망’의 수양딸로 있던 자칭비는 할망이 시켜서 짓고있던 문도령의 혼례복 옷자락에 ‘자칭비’라

는 이름 석 자를 새겨 넣어서 그것을 보는 문도령으로 하여금 자신의 거처를 암시적으로 알게 해 줌으로써 만날 길 없던 애인과의 재회의 길을 열게 된다. 만남을 겪은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문도령과의 사랑을 즐기던 자청비는, 문도령의 아버지가 어렵고 까다로운 시험을 혼인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자, 주저없이 그 혼인조건을 수락하여 백탄숯불위의 칼선다리를 건너는 당찬 용기를 보임으로써 하늘나라 며느리 되는 시험을 통과하여 허혼을 얻어낸다. 남편의 외도, 불량배들의 등장, 일천 선비의 유혹 등 당혹스러운 상황을 지혜로써 타개한 자청비는 또한, 약을 잘못 먹고 죽은 남편을 살리기 위해 남장여인의 모습을 하고 서천꽃밭으로 가서 꽃감관의 막내딸과 위장 결혼까지 해가면서 환생꽃을 얻어다가 남편을 살린다. 문도령과 함께 글공부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남장차림의 서생으로 나선 것이 순진한 시절 구애단계의 수단이었다면, 인간의 생사를 판결짓는 지엄한 서천꽃밭으로 남장차림의 비밀을 안고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으로써 사랑의 성취를 구현함이라 할 것이다. 서천꽃밭은 이승과 저승의 중간지점으로 생각되는 곳인즉, 결국 자청비는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가 선택한 남성을 살리려는 각오가 되어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자청비는 하늘나라 전쟁에 참가하여 승리함으로써 그 공으로 좋은 벼슬을 할 수도 있었지만 권력의 자리가 그녀의 소망은 아니었기에 이를 거절하고 “지주낙형(濟州落鄉), 물 흔착 땅 흔착을”을 원한다. 오곡의 씨앗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온 자청비는 인간세상의 농경신으로 좌정하여 생산과 풍요라는 여성성의 역할에 일로매진하게 된다.

남자가 사랑의 신뢰를 무참히 저버렸을 때 그 잘못을 어떤 식으로든 일깨우고 여성의 아픈 마음을 전하는 것은 사랑을 회구하는 남녀간에 기대할 만한 매우 자연스러운 성역할이라 하겠다. 문도령은 자청비와의

재회 약속을 두 번이나 까맣게 잊어버린다. 자청비가 그의 혼례복에 새겨넣은 신표를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문도령은 자청비의 방문 틈으로 집어넣은 자기 손가락 끝을 그녀가 바늘로 찌르는 것에 화를 내고 하늘 나라로 올라가 버린다. 오랜 세월 자기를 망각했던 애인을 향해 애절한 기다림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하는 일종의 사랑투정 같은 것이 남자의 단기(短氣) 때문에 공명을 얻지 못한 셈이다. 강인하고 자존심에 찬 제주 여성 자청비도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사회체제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이다. 그리하여 남성우위의 체제적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여자의 몸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남장으로 변신해서까지 글공부를 갔던 자청비였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무시당한 사랑의 욕구를 참고 있기만은 어려운 일이고, 남자의 무심한 마음을 바늘 끝으로라도 꼬집어주고 싶은 것이다. 여성에 대해 억압적인 사회체제가 엄연히 존재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청비의 자기주장 방식은 정녕 바늘 끝 일침 정도로 밖에 표출될 수 없었을 터이다. 자청비와 맺었던 재회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문도령의 무심함은 제주도 남성들, 어쩌면 여성의 섬세하고 애절한 애정욕구를 몰라주는 세상의 못남성들의 무정한 마음 씀씀이 그 자체를 빗대어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자청비가 보여주는 애절한 사랑 투정은 이야기의 결말에 와서 다시 나타난다. 문도령은 자청비가 임시 방편으로 부탁해 두었던 서천꽃밭 막내딸과의 임시 동거에 마음을 훌쩍 뺏겨서 자청비가 일깨워줄 때까지 그녀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무정함을 보여주는데, 너무 서두른 탓에 말안장을 거꾸로 타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자청비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한동안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체제상의 남성우위 용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표출되는 남녀간 사랑의 자기주장 행위라 여길 만하다.

3. 사랑다툼에서 유화적인 여성

제주신화의 여성들은 남자의 사랑을 두고 서로 다투는 상황에서도 배타적인 남성 독점을 고집하지 않고 너그러운 애정공유를 도모할 정도로 유화적이고 관용적임이 주목을 끈다. 위에서 살펴본 바, 여러 면에서 강한 애정욕구를 보여주고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는 제주신화의 여성들이 일부다처 관계라고 할 정도의 느슨한 애정공유 사례를 빈번하게 보여준다는 것은 흥미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그들의 애정구현 패턴이 결코 소극적이거나 미약한 자기주장의 것이 아니라고 할 때, 그들이 용인하는 일부다처 관계가 미약한 애정욕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나름의 지혜로운 현실적응 방식의 일부라고 해석함이 적절할 것이다. 즉 남성의 사랑을 여러 여성이 공유하는 것은 여성들 자신의 욕망 억제라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의 적응도를 높이는 자기실현의 길이며 궁극적인 욕구충족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3.1. 일부다처 관계를 용인한다

제주신화에서 일부다처의 부부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그 대부분이 본향당 본풀이에서이다. 한 남편에게 부인 두 사람이 생기게 되는 사연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제일 많은 것은 부인 하나를 두고 있던 남편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여 다른 여자 하나를 첩으로 데려오는 경우이다. 남편이 첩을 데려올 때 큰부인이 이를 제지하는 예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새로 들어오는 부인이 첩이라고 지칭되는 경우가 많지만, 첩이라는 호칭에도 불구하고 처첩간 권력관계에 우열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육지부의 처첩관계와 다르다. 첩이 큰부인의 권세에 눌려서 기가 죽어 지내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고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이니 이름만 처첩간이지 사실상은 일부다처관계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실지로 제주도의 전통사회에서 처첩간에 같은 동네에, 심지어는 같은 건물 안에 동거하면서 동일한 대가족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서로를 형님 동생으로 부르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예가 비일비재했던 사실이 신화에 그대로 표출된 것이라 보아진다.

남편이 첩을 데려오는 이유로는 큰부인이 ‘똥괴기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 제일 많은데, 소박맞은 큰부인이 남편에게 불평을 말하는 사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사랑의 욕망을 구현함에 있어서 적극성과 능동성이 두드러진 제주신화 여성 주인공들이 한 남성의 애정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의 애정공유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스토리의 의미가 어떤 것일지 우리의 탐구심을 자극한다. 더구나, 육지부 지방의 설화와 다 소간에 친연관계를 갖고 있는 일반본풀이와는 달리, 제주 지역 고유의 설화라고 할 수 있는 본향본풀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더 모아진다 하겠다.

3.1.1. 토산리 일뤼당 본풀이에서, 하르방신 브름운님[브름웃도]은 큰부인[신중부인; 서당팻일뤼중저]이 땅과 물을 보러 돌아다니던 중에 ‘똥괴기 부정’을 저지른 것을 탓하여 마라도로 귀양보냈지만, 작은부인[용왕국작은딸]이 직접 큰부인에게 찾아가서 귀가를 종용하여 데려옴으로써 한 남편과 두 부인의 공존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 본풀이에서는 한 남자와 두 여자의 일부다처 관계가 남성쪽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 자신의 주도적인 제안과 주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주목이 간다 하겠다.

[브름운님은 새로금상 후첩을 햅여 들어오란 “저만흔 남인이 전처가 으시리까?” “전처는 행실이 괴썸하니 가다귀썸으로 귀양을 보내엿습네다.” “전처 구박흐민 율법

으로 다시럽네다. … 그만쪽 혼 일에 성님을 귀양을 보내여시니 나도 가오리다.” … 마라도 서뿔[서쪽끝]을 가보니, 신중부인이 애기 일곱으로 환상을 하니, “설룬 성님! 귀양풀리게 왔습네다. … 예즈는 지아짓뵈[되돌아왔는뵈]이 있습네다. 나 인정을 뵈옵서 가계.” “결랑 기영 흐라.”] (『무가 본풀이』 635)

3.1.2. 서귀 본향당 본풀이에서, 한 남자를 둘러싸고 두 여자가 벌이는 사랑 다툼의 이야기에서는 제주의 열정적인 여성상이 강인함 속의 부드러움을 느끼게 한다. 한 여자가 어떤 남자의 사랑을 당연히 요구할 처지에 있으면서도 부득이한 상황에 이르면 그 남자의 사랑을 고집스럽게 독점하기보다는 다른 여자와 공유하기를 택한다는 것이다. 하르방신(인문관)바람웃도가 홍토(紅土)나라[또는 중국]에 유람을 갔다가 어느 지체높은 가택에서 예쁜 처녀를 발견하고서는 그 집에 일부러 머물러 주인의 환심을 산 후 사위가 될 것을 허락받는다. 혼례식을 올리고 보니 신부는 마음에 두었던 그 미인이 아니라 추한 여자였고 염탐을 해본 결과 앞서 본 미인의 언니 고산국임을 알게 된다. 바람웃도는 처제인 미인에게 다시 구애한 결과 언니 몰래 같이 도망기는데 성공한다. 두 남녀는 제주도 한라산까지 도망쳐 오지만 어느새 고산국이 알고 뒤쫓아 와서 세 사람의 다툼이 벌어지나 고산국은 마침내 울분을 참고 남편과 동생에게 동서편으로 마을을 갈라서 살자고 선언한다.²⁾ 고산국의 주도하에 뿔

2) [그제사 고산국은 남편뵈 양반신디 말을 굿다가도 “암만 고퉼 생각을 흐여도 흐디 살 수가 었으니, 부배간 정이랑 뒤도 내 손에 밍은 다 자샷소, 흐니 땀로 갈라 살자.” 이첸 그영 흐연, “인간도 갈르자, 땅도 갈르자, 물도 갈르자.” 흐난, 남편은 “뿔뵈 복중흐네다. 부인부뵈 모녀 땅을 갈르소.”] (『무가 본풀이』 516)

고산국 부인의 매서운 강단을 보여주는 다소 복잡한 서사구조를 간명하게 줄인 구연도 있다.

[서귀포 일문관이 서홍리 고산국안티 장겔 가난, 새각시 얼굴이 하도 곱인, 얼굴 존 처제에 미첸 사난, 고산국이 동싱 성을 개부시켄, 동홍리 지산국으로 일흠을 지왔 수다.] (『무가 본풀이』 500)

개질과 활쏘기로써 경계를 정한 세 남녀는 고산국이 차지하는 서흥리 하고 바람웃도와 동생이 차지하는 서귀리 동흥리 하고는 일체의 왕래를 불허하기로 한 것이다. 고산국은 자기를 배신한 남편에게 해꼬지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마음도 억누른다. 동거하지는 않으면서도 부부간의 정은 그대로 두기로 하는 애매하고 불안정한 일부이처관계를 감수하는 고산국의 마음에서 강함과 부드러움이 동시에 느껴진다. 만약에 고산국이 남편을 죽이거나 해친다면 그와의 애정관계는 완전히 끝나는 것이 되고, 만약에 동생을 아주 물리치고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하다가는 한 남자의 애정을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고산국의 결심에 담긴 오묘한 뜻이 감지된다 하겠다. 이러한 고산국의 입장을 두고 “당차고도 정에 약한 모습, 분노 속에서도 남편의 자리를 배려하는 모습은 바로 제주어명의 모습이다(하순애 96)”라는 묘사가 나올 만하다고 할 것이다.

3.1.3. 송당리 분향당 본풀이에서, 하르방신 소천국은 밭 갈다가 남의 소 잡아먹은 일 때문에 할망신 백주또로부터 살림을 분산당한 결과, 할망신이 웃송당으로 올라가 버리자 하르방신은 알송당으로 내려선 다음 한라산신의 딸[또는 정동칼챗 딸]을 첩으로 삼는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그 때까지의 배필관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고 소천국이 두 부인을 거느리는 일부다처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주또는 자기가 기르던 아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그 아들을 소천국에게 데려다 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부 구송자의 본풀이에서는 그 아들이 전 남편의 소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자기 아들이 호로자식 놀림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별거중의 남자와 상면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아서 살림분산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의 배필로 여기는 것일 터이다.

[소천국이 백주할망광 사념을 갈릴 적에, 오백장군 오백서 딸을 소첩을 삼아 살아 간다. 백주할망은 옷손당서 고사리 적그고 낭여름을 탕 먹으며 살아가는디, 백주할망 옛적에 중의 몸에 낳은 으뜸 아들 가운데 쳇젯 아들을 공즈의 도선신에게 글공비를 들어갔다. 하니, 이 얘기 일름을 ‘송곡성’이라 지와, 글공빌 하니, 일곱 살 나난 “애 비 었는 호로즈석이라” 벗질에 풀름을 받았다. 송곡성인 어명신디 오라 “아방 간 딜 일러줍서” 하여, 오백장군 소첩하여 살아가는 아방국 소천국을 츠자갔다. 송곡성 ㄱ라 “저게 너의 아방이다.” 하니 ….] (『무가 본풀이』 411)

3.1.4. 평대리 본향본풀이에서, 평대리에 좌정한 명동소천국은 밤사냥을 나갔다가 만난 오설령이 딸 단단춘이를 데려다가 첩으로 삼아 살면서 송씨할망으로부터 노염을 산다. 당황한 명동소천국은 송씨할망에게 축원과 사과를 드리고 어선들 길흉을 돌보는 해신으로 좌정케 하여 노염을 풀어주는 한편 단단춘에게는 사냥한 짐승 잡은 것으로 환심을 사면서 일부이치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부부간이 갈리시고 오설령이 떠남애기와 살림살이를 해여 송씨할마님은 노염을 풀지 아니하니 신이성방[심방] 돌아다가 송씨할마님 노염을 풀기 위해서 천번 기도를 하고 만번 축원을 해여 사과를 드리고 축원하니 송씨할마님 노염을 풀어 정송이빌레로 들어사 가는 선(船)도 차질허고 오는 선도 차질허고 개할망 돈지서낭을 차지허고, 명동소천 고비금상은 웃멍동이 좌정해여 대강늑 소강늑 대똥 소똥 맞혀다가 은설[寒血]을 받아 맥이며 오씨안당 오씨백당 단단춘이 조막손이하고 부부간을 무어 살림살이를 하옵대다.] (『서사무가』 218-9)

3.1.5. 김녕 괴뇌깃당 본풀이에서, 알송당 소천국의 아들인 태자님은 밭 갈다가 소를 잡아먹은 탓으로 무쇠철갑에 갇혀져 바다에 떠다니다가 용왕국 셋째 딸을 아내로 취하여 돌아오는데, 한라산에 올라갔다가 산신의 외딸을 다시 취함으로써 두 아내를 두게 된다.

[태자님은 할로영산 백록담에 올라간 요왕 황제국 말죽똥애긴 대부인을 삼고 할로

영산 단뿔애긴 소부인을 정호여...] (『무가 본풀이』 373)

3.1.6. 제주시 궁당 본풀이에서, 당신인 상사대왕은 큰부인인 중전대부인과 작은부인인 정절상군농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작은부인이 임신 중의 입덧으로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 멧돼지 발자국에 물이 조금 고인 것을 발견하고 그 물을 빨아먹다가 돼지털 하나가 코를 찌른다. 이 털을 태워서 냄새를 맡으니 돼지고기를 먹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남편인 상사대왕이 종경내[수태지를 잡을 때 생식기 부위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더럽고 부정하다며 살림을 분산시키는데, 큰부인은 안쪽으로 좌정해서 돌레떡, 시루떡, 청감주 등 정결한 음식을 받아먹게 하고 작은부인 정절상군농은 담장 “비쪽같이 좌정해서 돼지를 잡아 열 두 뼈를 받아 먹어라”고 하였다(『제주도신화』 225). 남편은 작은부인의 부정행각에 대해 응분의 벌을 내려서 신당의 담장 바깥으로 나가라고 하지만, 좌정할 곳과 살아갈 생계를 마련해줌으로써 부부관계를 끊지는 않고 있으니 일부이치의 삼각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 살펴볼 몇 개 마을의 본향본풀에서도 이렇게 자기 부인의 ‘똥괴기 부정’을 탓하여 하르방신이 할망신을 소박놓고서 부인을 두 사람씩 거느리는 일이 벌어지지만, 소박맞은 부인의 생계를 계속하여 마련해주는 것으로 보아 일부다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7. 신평하천(新豊下川)의 본향당 본풀이에서, 금백조의 셋째 아들 개로육서또는 川尾川 일대 세 마을(신평, 신천, 하천)의 수호신인데, 큰부인의 ‘똥괴기 부정’을 탓하여 시냇가 한곳에 좌정시킨 다음에 산수 좋은 곳을 유람하다가 이웃 마을 예쁜 처녀 새금상뜨님아기에게 반하여 첩으로 삼고 신평리에 좌정시킨다.

[큰부인이 목이 물라 물이 먹고저 혼난 냇빌레를 좇단 보니 물이 꺾적꺾적 있어지 니 그 물을 먹단보단 ... 돛꺾기 내가 낚데다. 한집안티 와서니 한집님이 말을 흐뵈 “부정이 만만하다. 시내방천으로 좌정하라” 하니, 시내에 가 좌정하고, 한집님은 산썰(山血) 물썰(水血) 돌아보단 새금상뜨님아길 만나 얼굴에 취혀여 소침을 삼고 드라 아전 산썰 물썰을 불라 느려오단 이 므을 곱지리 동산 앓아보니 좌정홀 만한다 허여 앓입데다.] (『제주도무속자료사전』 696-697)

3.1.8. 신흥리 자운당 본풀이에서, 자운당의 당신은 ‘토산당의 개로역 한집을 소실로 드랑 올 때에’ 그녀가 부정한 물을 빨아먹은 것을 탓하여 소박을 놓고 있는데, 전후 문맥을 들여다 볼 때에 큰부인과 소실을 두는 일부다처관계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무가 본풀이』 451)

3.1.9. 토평 본향당 본풀이에서, 한라산신들 중에 형제간인 백관님과 조족잇한집은 화살을 쏘아 경계를 가른 결과 형 백관님은 남원 땅을 차지하고 동생 조족잇한집은 효돈과 토평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조족잇한집은 ‘돛꺾기 부정’을 저지른 부인을 토평막동골로 물리치고 새로 얻은 작은부인은 보목리에 좌정시켜서 좌우에 두 부인을 거느리게 된다.

[조족이 각시가 애길 배연, 입이 굽부난[마르니까] 흐르는 괴길 그리완, 돛꺾기 먹은 게 그만 서방안티 부정흐덴 퇴척맛안, 브름웃테레 지울려부단 토평 막동골로 가 좌정하고, 또시 조족인 새금상 죽은 처를 정혀여 불목리레 가 좌정을 하니, 동꺾인 남꺾, 서꺾인 죽은 부인이 동서제로 좌정흐였수다.] (『무가 본풀이』 506)

3.1.10. 보목리 본향당 본풀이에서, 조족잇한집 당신은 부인이 잡지는 돼지 항문에 손을 들이밀어 내장을 빼먹었다는 구실로 이 할망신을 막동골 동네로 옮겨 살도록 한 다음에 후처를 얻는다. 여기에서는 ‘돛꺾기 부정’을 저지르는 여성의 적극성과 대담성이 주목을 끈다 하겠다.

[이젠 조눅잇한집님 처(妻)씨는 돛피기를 팻씩 먹고판 상돛통에 기여들언 보니 되야지가 용베겔 배와 용좁을 자고 이서, 강맹지를 손에 감아쥐고 항문으로 손을 드리몰아 간내 식식 양외 식식을 빼여먹어 부정히고 서정히고 경흐연 이시난 브름웃또 조눅잇한집이 그 올래에 갔더니 권경내가 나고 야광내가 나서 “이게 어떤 일이나?” 하니 “피기를 먹고판 이만저만 흔게 권경내가 납니다.” “경흐민 우리 묶은 도광 흔디 살 수가 엇이니 막동골로 좌정흐라”] (『무가 본풀이』 494)

3.1.11. 세경본풀이에서, 자청비는 환생꽃을 얻어다가 문도령을 살려 주기 위해 남장차림을 하고서 서천꽃밭의 꽃감관을 만나게 되는데 꽃밭의 파괴자인 부영이를 퇴치해주는 그녀를 막내사위로 삼겠다는 꽃감관의 청혼을 듣고서 자신은 이미 장가를 든 몸이라고 한다. 그러자, 그녀를 매우 용맹한 남자로 인정한 꽃감관은 자기 딸을 첩으로라도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혼인을 성립시키는데 이는 일부이치관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한 행위라 할 만하다.

[“이제 남은 새는 솟부영새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 새를 쏘아주면 내 딸을 저 손님에게 첩으로도 좋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가를 이미 들었습니다.” “당신 같이 착실한 도령님이 물론 장가든 줄 알고 하는 말입니다.” “첩이라도 좋다 하시면 소원을 들어 드리겠습니다.” … “우리 막내딸 아기 열째 첩으로라도 좋으니 받아 주십시오” (風俗巫俗 96-7)

또한, 자청비는 자기가 얻어온 환생꽃으로 되살아난 남편 문도령에게 부탁하기를, 서천꽃밭 사라대왕의 막내딸과 맺었던 (전략적 위장결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정 기간씩 세월을 양분하여 두 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살라고 하는데 자청비의 이 말은 명백한 일부이치관계 수용이라 할 수 있다.

[문국성 문도령이 “아이구! 봄 즈이랑 너미 자졌쑤다.” 와들랑이 일어나난, 즈청비가 말을 혼다. “낭군님을 살리젠 서천고장밭덜 간 고장을 타단 살렸쑤다. 서천고장밭 고장타레 간 때에 그디 꽃감관 말긋뜰애길 얻어두언 오렸쑤다. 그디 가건 그디랑

삼년을 살건 나 신디랑 혼 해만 삼서 …” (『무가 본풀이』 312)

3.1.12. 문전본풀이에서, 물 건너간 지방에 돈 벌러 나간 남선비가 약삭빠른 여자 노일저대의 꼬임에 빠져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가 뒤늦게 찾아온 여산부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이들 부부는 함께 따라가게 해달라는 노일저대의 청을 들어준다. 남편이 옆에 있는 가운데 처첩의 동반 귀가가 이루어지는 이 대목이 빠진 이본들도 있지만 다음 자료에는 이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본풀이의 결말 부분에 가서 나타나는 본풀이 주인공들 신격화(神格化)의 서사구조가 주목을 끈다. 즉, 남선비가 정낭신이 되어 가정운영의 실질보다는 명목 위주인 남성의 무력한 위치를 말해주는 반면에, 본부인이 조왕할망[부역신]으로 좌정함과 더불어 본부인과 대립되는 첩도 “인간 삶에 없어서는 안되는 변소의 신으로 좌정”(김정숙 192)함으로써 생전의 일부다처관계가 죽어서도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제도 나를 몰르쿠과.” 남선비는 눈을 턴 브려보난 큰부인이 분명하디 눈물이 스리슬슬 떨어지명 홀목애길 부여잡고 부인님이 흐는 말은 낭군님이 들어간다. 낭군님이 흐는 말은 부인님이 들어간다. 오동나라 귀일이 딸 소곳문에 들어산다. 원체가 년이 눈치가 좋은 년으로 신착에 오줌 적전 입에 물고 양독ㄹ립 끌리고 혼연, “설룬 성님 플라봤수다. 과연 저를 살려줍서.” “불써 무간이로구나. 우리가 삼부체로 혼디 살게.” “설룬 성님, 계민 고맙쭈다. 고양이로 혼디 가쿠다.” (『무가 본풀이』 125)

[나는 남선비 큰 각시노라, 오래 도라오지 아니하니 차지래 왓노라 하니, 노일저대가 형님 형님 하며, 형님은 엇덕케 사심넉가, 형님 사는 곳으로 우리 갖치 가서 삼시다 하니 그리하라 하고 도라오자 할 쟈 …;] (『朝鮮巫俗의 研究』 332-3)

3.2. 사랑의 공유는 자기억제가 아니라 자기실현의 길이다

제주신화 스토리 가운데 일부다처 관계가 많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신화의 배경인 제주도의 전통사회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인구수가 더 많았다거나 제주 여성의 강인한 자활능력이 남편에 대한 의존성을 덜어주었다는 것이 일부일처의 부부관계가 느슨하게 풀려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제주신화의 스토리에 담겨있는 제주인의 특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과거에 제주의 여성들이 일부다처 관계를 그들의 삶의 기회로 수용하게 된 내적인 필연성 같은 것을 찾아보고 싶어진다. 과거에 제주의 여성들이 사랑의 욕망을 구현함에 있어서 일부다처 관계가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든다는 것이다.

제주 여성은 일부다처관계를 용인한다고 해서 사랑의 향유를 포기하는 욕망 억제의 길을 간 것은 아니고 사랑의 공유를 통하여 자기실현의 길을 택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일처다부관계를 초래하는 원인이 여성들 자신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니,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당하여 거소를 옮기는 일이 여성 자신이 ‘뚫괴기 부정’을 저지른 탓에 일어난다는 것이다. ‘뚫괴기 부정’을 저지르면 살림을 분산당하고 제3의 여성이 들어와 부부관계의 틀이 바뀔 수 있음을 알면서 여성 스스로 저지르는 일인 것이다. 더구나 그 여성들은, 위에서 보았듯이 자신의 욕망을 감추거나 억누르고 살아가는 수동적 소극적인 성격이 아니고 어떤 외적인 권위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서 자기주장을 펴는 매몰찬 강단성의 소유자들이다. 제주 여성들의 열정적인 애정욕구와 애정구현의 뛰어난 지혜를 생각할 때, ‘뚫괴기 부정’을 통한 일부다처 관계의 수용은, 뜻하지 않은 실수 탓으로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자기억제가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기실현의 길이라고 보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못난 남자를 독점하기보다 잘난 남자를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제주신화 여성 주인공들의 사랑 방식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부다처제도는 일부일처제도에 비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매력있는 남성을 얻을 확률이 더 높은 제도이다. 제주신화에서 일부다처관계를 수용하는 여성들은 원하는 남성에 대한 독점욕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남성을 다른 여성과 공유할 때의 안전을 추구한 것일 터이다. 특정 남성을 독점하려고 할 때 다른 경쟁 여성과의 다툼이나 그로 인한 애정상실에 부딪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제주신화에서 나오는 일부다처 관계가 남존여비의 관습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 남편에게 부인 두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성들의 위신이나 권력이 별다른 손상이 생기지 않는다. 부인이 남편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키는 이야기가 빈번하다는 것은 제주신화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권능이 막중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한다. 천신의 후예가 남자의 조상이 되고 짐승에서부터 변신하여 여자의 조상이 된다는 단군신화와는 달리 제주의 건국신화에서는 사냥꾼 남성신들에게 배필이 되는 여성신들이 이웃나라 공주의 신분이다. 이 여성신들은 사냥꾼이던 남편들에게 오곡의 씨앗과 가축을 선물하여 농경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그들의 생활문화를 크게 격상시킨다. 송당리 본향당 본풀이에서도, 사냥꾼이던 소로소천국과 결혼한 백주또도 역시 남편에게 농사를 가르침으로써 안정된 생업의 길을 열어준다. 삼공본풀이에서 가난한 마통이 남편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당찬 여성 가문장아기이다. 이밖에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던 남성이 집에서 쫓겨났다가 외지 여성을 아내로 취하여 귀향한 결과 부모의 신임을 회복하게 된다는 본풀이 이야기도 여럿이 존재한다. 여성들의 권능이 이렇게 큰

것으로 나오는 제주신화에서 일부다처 관계가 빈번하게 나온다는 것은,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성이 여럿이라는 사실이 그네들의 욕망의 구현에 역행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일부다처제도가 여성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음은 성선택(性選擇)의 진화론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이 유전자를 반반씩 제공하여 잉태가 이루어지지만 잉태와 분만의 책임은 오로지 여성만이 담당한다는 사실 때문에 짝짓기 파트너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선택기준이 달라진다. 자기 유전자를 전승시키는 것이 성선택의 최우선 과제라는 가설에서 볼 때, 남성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여성과 짝짓기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잉태와 분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한 자기 유전자 전승의 환경 속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유전자를 키우고 전승시켜줄 여성과 짝짓기하는 것도 중요하며, 일부일처 제도는 이같은 남성의 욕구에 대해 좋은 환경이 되어준다. 한 남성에 대하여 한 여자가 배정되는 일부일처 제도에서는 비교적 성적 매력에 떨어지는 남성의 몫으로도 특정의 한 여성이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남성은 단기적인 섹스 파트너로서는 여러 여성을 취하려고 하지만 장기적인 배우자, 즉 유전자 전승 책임자로서는 단일의 특정 여성을 취하려고 한다. 결국 일부일처 제도는 남성들, 특히 못난 남성들을 위한 짝짓기 방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남성과는 달리 자기 유전자 전승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우량아 출생을 기하기 위해서 남자로부터 우량 유전자를 얻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짝짓기 파트너에게 다른 여성 파트너가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다른 여성 파트너가 있더라도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남성[여성의 관심을 끌 만한 매력있는 남성]과 짝짓기 하는 일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우수한 유전자를 보유한 남자가 우량 유전자 제공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러 여성의 번식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일부다처제라야 한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짝짓기 상대를 자신이 독점하는 것보다, 자신이 독점하지 않더라도 우량 유전자를 보유하는 남자와 짝짓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진화론적인 생명의 원리로써 남녀간의 사랑을 설명할 때, 제주 신화에 나타나는 일부다처 관계의 사례들은 생물학적인 인간본능이 본래적인 추동력을 발휘한 결과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엥겔스 등이 말하듯이, 원시사회에서의 난혼 또는 일부다처 제도가 역사시대에 와서 일부일처 제도로 바뀌어 정착된 것이, 사유재산 상속을 둘러싸고 벌어진 남성중심의 정치경제적 지배논리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제주신화에 나타나는 일부다처 관행은 그같은 역사적 억압이 있기 이전의 사회체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제주신화의 배경인 제주도의 전통사회에서 존재했던 일부다처 관행은, 여성의 본능억압이 제도화되기 이전의 자연상태에 보다 더 가까운 사랑방식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

역사의 발전은 때때로 진보와 퇴보가 전도되고 밝음과 어둠이 서로 뒤바뀌는 아이러니를 연출한다. 도구적 이성의 지배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문명의 횡포와 소박한 휴머니티의 고갈로 이어지기 쉽고, 산업화의 과도한 진전은 무자비한 자연파괴와 탐욕적인 과소비를 일으키기가 십상이고, 강력한 국가체제의 등장은 개인생활의 억압과 유혈충돌의 비극

을 초래하기가 쉽다는 것이다. 제주섬에 신화의 전승이 풍부하고 신화 속 여성 주인공들의 활동상이 유달리 두드러지다는 사실은, 남성에게 의해 주도되었던 근대화 성과에 대한 거시적이고 문명사적인 성찰과 더불어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남성성과 여성성의 가치에 대한 재래의 평가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사회변동과 역사발전의 추동력이 남성에게 있다는 종전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는 대세에 있으며, 오늘날 세대의 변화는 오히려 미래사회에서의 여성성의 우위를 예견케 할 정도이다. 전통사회에서 남성우위의 인간역사를 보장해 주었던 것은 여성보다 강한 물리적인 체력이나 자연자원 활용의 공간지각적 수리분석적 추론 능력 같은 것이라고 할 때 이 같은 남성성의 자질은 거의 모두 컴퓨터와 같은 기계장치가 대행할 수 있지만, 여성성의 자질은 그 대부분이 기계의 힘으로 대치될 수 없는 것들이다. 컴퓨터 같은 기계로 분석할 수 없는 여성적인 감수성이야말로 인간적인 삶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때, 인간의 삶의 요소들 중에서 진실로 인간적인 것은 여성적인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하다. 생명을 잉태 양육하고 오묘한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따뜻한 보살핌을 베푸는 섬세한 감성능력으로서의 여성원리는 기계문명의 폐해가 심해질 수록 더욱 크게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제까지 홀대받아왔던 여성원리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미래사회에서 제주신화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지난 시대의 남성우위 인간역사에서 볼 때에는 제주신화에 나타나는 강한 여성성이 낙후된 삶의 징표였을지 모르지만, 이성중심 남성중심의 인간역사 (또는 그 종착점으로서의 근대역사[modernity])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이 행해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는 여성원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평가가

불가피한 것이다. 제주신화 특유의 여성원리가, 과거 제주인의 역사가 본토의 역사와 격리되었다는 격절성(隔絶性)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때, 중앙문화의 실추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주변문화라는 굳건한 문화철학을 가질 만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전개될 제주문화의 확산적 발전 과정에 제주신화의 여성원리가 창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문헌

- 고대경, 『신들의 고향』 도서출판 증명, 1997.
- 김영돈-현용준-현길언 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 김정숙, 『자청비·가문장아기·백주또』 도서출판 각, 2002.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도서출판 역락, 2001.
- 조현설, 『우리 신화의 수수께끼』 한겨레출판, 2009.
- 좌혜경, 『한국 제주 오키나와 민요와 민속론』 푸른사상, 2000.
-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 추엽용(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上)』 東文選, 1991.
- 하순애, 『제주도 신당 이야기』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8.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도 무속연구』 집문당, 1986.
- _____, 『제주도신화』 서문문고, 1977.
- _____, 『제주도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제주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편, 『이용옥심방본풀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9.
- (작자미상), 『風俗巫音』 제주문화, 2002.

Abstract

Feminine Characteristics in Jeju Mythology

Yang, Young-soo*

Female characters in Jeju mythology are described as very active and shrewd love-makers. They approach male characters for love on their own initiative, and demonstrate quick wits in maneuvering the success of their love affairs. They show a tendency to conform to social customs, and so suffer from few conflicts with the established order. They support themselves on their own talents when they are pressed to part from husbands. Interestingly they are tolerant of polygamous married life to the extent that two wives within one family very often get along well with each other.

Key Words

active courtship, tough self-reliance, conformist love-style, tolerant cohabitation of love-rivals

교신 : 양영수 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E-mail: chumwell@jejunu.ac.kr 전화: 064-754-3226)

논문투고일 2010. 06. 20.

심사완료일 2010. 07. 20.

게재확정일 2011. 02. 07.

*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